벤처천억기업 에 바란다.

정 대 용 (숭실 대학교 벤처중소기 업학부 교수)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취지로 설립된 '벤처천억기업' 은, 2006년 78개, 2007 년 102개, 금년에는 신규 가입한 기업이 62개를 기록하며 전체 152개사를 넘어섰다. 이 152라는 숫자는 새로운 미지의 기술영역에 도전하는 모험심 가득한 기업가정신이 무수한 실패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뤄낸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벤처산업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지 11년 만의 쾌거이다.

무엇보다 '벤처천억기업' 의 증가는 우리 벤처산업 전체의 체질 강화를 반증하고 있다. 천억 이라는 상징적인 매출액을 기록 가능하게 한 벤처의 기술과 열정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성장 에너지가 될 것이며 중소 벤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전반적인 벤처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가 탄탄한 벤처들이 구미시장으로의 수출 호조 등을 통해 지속적 성장세를 보였다. 평균 매출액(24.68%)과 고용(15.77%)을 증가시킨 벤처라면 얼마든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올해 매출 1위 기업은 9,20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NHN(대표 최휘영)이 그 영예를 차지하였다니, 내년에는 매출 1조의 슈퍼 벤처도 기대가 된다.

'미래예측' 이 아닌 '미래창조' 해야

날로 치열해지는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장 속에서 벤처기업도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야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성공하려면 미래를 예측하기 보다는 창조해나가야 한다"식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변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고 본다.

첫째,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기업가정신으로, 글로벌 벤처기업경영의 모델을 자원지향적 모델에서 기회지향적 모델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둘째, 종래의 매상지상주의로부터 수익중시경영으로 전환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경영투명성의 확보와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사업 설정 등의 구조개혁 등을 이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끝으로, 세계시장진출로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벤처기업들을 위하여 '벤처천억기업' 의 협력체계망을 구축함으로써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기업 내 · 외부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나가려는 사회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혁신을 수행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신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나아가 '벤처천억기업' 이 신생 벤처기업의 역할 모델이 되고 우리 경제의 동력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대표 선수로 거듭나기를 바란다.